

(...8페이지에 이어)
계 여긴다. 뉴딜펀드가 투자
할 '한국형 뉴딜'엔 저탄소·녹
색산업단지나 스마트 의료 인
프라 구축 같은 공공성 강한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공
공 사업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전 정부의 관제 펀드들
도 거의 모두 실패했다. 그러
나 이번엔 정부가 사실상 원
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
반인 투자자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끌 것이 틀림없다. 재
난지원금처럼 세금으로 국민

에게 '공돈'을 뿌려 환심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시점이
2025년 이후이니 설사 펀드가
부실 덩어리가 돼도 다음 정권
책임으로 넘어간다. 법과 원칙
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너무
나 무책임하다.

코로나 파시즘

두 얼굴을 가진 코로나...
질병과 정치 두 측면 구별해야
코로나 방역 상황 활용한
통치술... 失政과 민주주의 파
괴 은폐



의료계 파업 초래한 파시
즘... 국민 생명보다 권력강
화 우선

코로나 사태는 두 얼굴을
가졌다. 질병으로서의 코비드
19와 정치 현상으로서의 코
로나로 구별해야 한다. 코비드
19는 심각한 감염병이다. '
감기에 불과한 질환'을 자본
과 권력이 중대 질병으로 부
풀렸다는 소문은 전형적 음모
론이다. 코비드19가 노년층과
만성질환자에게 큰 위협이 된
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과
학적으로 입증됐다. 한국도
60세 이상 확진자와 중증 환
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 코비드19는 국민
생명을 실제로 위협한다. K방
역 선봉장인 정은경 일본 본
부장이 신뢰받는 인물로 떠오
른 이유다.

생명을 지키는 긍정적 효과
다. 또한 K방역으로 꾸민 정
권의 생체권력은 국민이 자발
적으로 정치권력에 복속하도
록 만든다. 코로나 위기가 악
화할 때마다 정권 지지도가
오른다. 문 정권의 실정과 민
주주의 파괴를 감추는 부정적
효과다.

의료 사태는 문 정권의 코
로나 파시즘이 작동하는 최전
선이다. 파시즘은 좌우 이념
의 경계를 넘어 반(反)자유민
주적 일당 독재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지도자
를 숭배하는 군중을 부추겨
반대자를 나라의 적으로 매
도한다. 민족과 공동체 감성
에 호소해 합리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탄압한다. 결국 파시
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은 대
중 독재로 표출된다. 문 정권
장기 집권 기획에서 나온 '4대
의료 정책'은 코로나 파시즘
을 증명한다. 행정·입법·사법
의 강권력과 어용 언론, 시민
단체의 연성 권력의 합작으로
의료계 반발을 억누른다.

의료 사태에서 문 정권은
이중 포위 전술을 구사한다.
행정 권력으로 의료계를 강
압하는 것과 동시에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난하는 여
론전을 펼친다. 소주성·탈원
전·검찰 개혁에서 애용한 전
술이다. 저항하는 상대를 끝
임없이 갈라쳐 적폐 세력으로
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
와 국민을 편 갈라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폄하하더니
이젠 의사와 간호사까지 갈라
친다. 개혁을 빙자한 갈라치
기는 자기 진영만을 위한 초
법적 특권의 성(城)을 쌓기 위
한 것이다. 특정 지역과 어용
단체의 지지로 헤게모니를 굳
혀 장기 집권하는 것이 문 정

코로나 사태는 질병을 넘
어 코로나의 정치학으로 확
장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
을 흐르는 전염병을 다루는 '
생체권력(Bio-power·生體權
力)'이 코로나 정치를 촉발한
다. 옛 통치 권력은 신민을 '죽
이는 권력'으로 군림했고 현
대 권력은 시민을 '살리는 권
력'으로 등장한다. 생체권력
은 생명 살리기를 앞세워 우
리 몸을 권력의 '관찰, 판단, 검
사'에 종속시킨다. 규율적 생
체권력의 파놉티콘(Panopti-
con·전방위적 감시망) 아래
우리는 체제에 자발적으로 길
들여진다. 몸과 마음이 길들
여질 때 인간의 자유는 꺼풀
만 남는다. 부드러운 얼굴의
빅브러더 생체권력이 코로나
파시즘의 문을 활짝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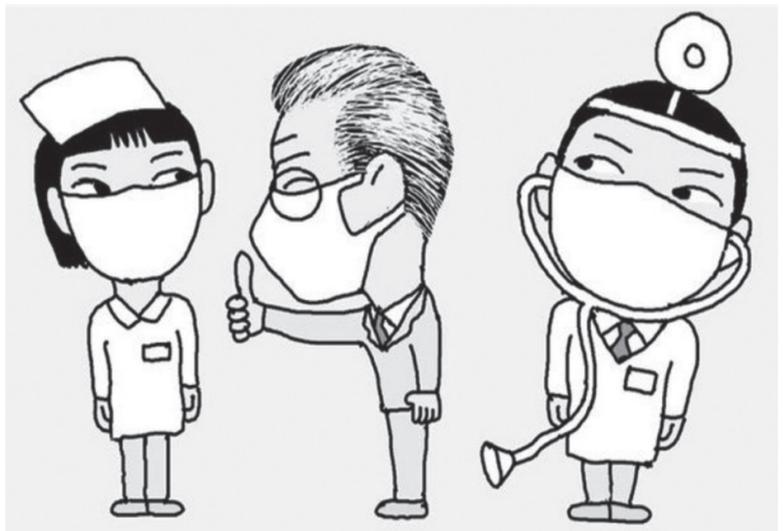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
역을 이용한 생체권력으로 국
민을 다스린다. K방역엔 빛과
그림자가 섞여있다. 정권이
편승한 코로나 방역은 한국
의료 체계의 선진성과 의료
인들의 헌신, 시민의식의 합
작품이다. 코비드19에서 국민

권의 궁극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 파시즘으로
의료계를 장악하려던 문 정권
에 제동이 걸렸다. 정권 최대
업적인 K방역의 주체인 의료
계를 겨냥한 위력 시위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사
파업이 길어지면 K방역은 붕
괴한다. 의사들의 '밥그릇 싸
움'으로 딱지 붙인 여론전에
문 정권이 주력하는 이유다.
그러나 '밥그릇 싸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
정한 밥그릇'이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건 '밥그릇'에 대
한 요구가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민
생과 직결한 의료 정책이 반
드시 민주적 숙의와 조정 과
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다. 책
임 있는 정부라면 의사가 아
니라 코로나와 싸우야 마땅하
다. 정부는 즉각 4대 의료 정
책을 철회하고 의사들은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국민 생명보다 권력을 중
시한 코로나 파시즘이야말로
의료 사태의 주범이다. 문 정
권은 현대 문명의 터전인 시
민사회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그 최후 보루인 의료계를 협
박한다. 의료 전문가들을 권
력에 종속시키려는 파시즘에
대한 민간 저항이 의료 사태
의 본질이다. 의료계가 무너
지면 대학과 공론장도 무너진
다. 문 정권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절대 권력의
계변으로 국민을 겁박한다.
코로나 파시즘은 '예중예의
길'이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
다.' 시민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한 한계는 어디인
가? 코로나 정치학이 한국인
에게 처절한 질문을 던진다.
윤평중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의사와 간호사



해마다 의대 졸업식에선 '
히포크라테스 선서, 간호대
에선 '나이팅게일 선서'가 낭
독된다. 임상 경험을 쌓기 위
해 병원 현장에 나가는 졸업
생들이 '일생을 의롭게 살고,
삶을 인류 봉사에 바치고, 환
자 건강을 최우선 배려하겠
다'고 다짐한다. 의학의 아버
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전장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 나이
팅게일을 표상으로 삼겠다는
의식이다. 올 2월 코로나 사태
로 전국 대부분 대학 졸업식
과 선서 낭독이 취소되면서
많은 졸업생이 아쉬워했다.

을 해 될 틈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콧대
만 높지 환자 처방 지지도 제
대로 못 하는 의사가 수도룩
하다"는 간호사들도 있다. 그
래도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게
의사, 간호사다. 외과, 산부인
과 등 의사가 부족한 수술실
엔 경험 많은 간호사가 인턴·
레지던트 대신 들어가 '준(準)
의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코로나 사태 때 대구로
달려간 35명 의사·간호사들
이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란
책을 펴냈다. 매일 수백 명씩
환자가 쏟아지고 죽어가자 "
의료진들까지 코로나가 무
서워 달달 떨던 상황" "현장
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공황
장애"가 왔다고 했다. 그래도
끝까지 현장을 지킨 힘은 "전
문 직업인의 소명"이었다고
적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
전우애처럼 동료들을 두고 떠
날 수 없었다"는 간호사도 있
었다. 바이러스 앞에서 간호
사, 의사가 공동 운명체였다
는 것이다.

▶올 3월 미국 뉴욕에서 하
루 수백 명씩 코로나 사망자
가 나오자 의사, 간호사들이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종군
경험이 있는 의사는 "이라크
전쟁에 파견됐을 때보다 훨씬
두렵다"고 했고, 전쟁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너무 두려워
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
렸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도 "죽으면 화장해 달라"고 유
언장을 쓴 의사, 생명보험이
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가족에게 남기고 현장에 달려
간 간호사들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설미
디어 글에서 의사들은 '의사
들'로, 간호사들은 '간호사분
들'이라고 불렀다. 지난 4월 '
보건의료인의 날' 때도 간호
사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방
호복의 전사'라고 했다. 병마(
病魔) 앞에서 함께 싸우고 같
이 악전고투하는데 간호사만
유치한 방식으로 치켜세운다.
의사 때리기가 분마음일 것
이다.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곳이 병원 현장이다. 그러다
보니 붙어지내다시피 하는 의
사, 간호사들이 부딪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의료변상 간
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
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맡는다. "간호사들이 지시를
안 따르고 걸핏하면 콜(call)

가 자 여행 행사 SALE!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투어 상품

1.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2.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3.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1.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2. 핵시 서유럽 6박 7일
3. 이태리 일주 7박 8일
4.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5. 동유럽 7박 8일
6. 발칸 일주 11박 12일
7.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8.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9.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미서부 투어 상품

1.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2.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3.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4.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5.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6. 옐로스톤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